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즐거운 배움터

고흥백양초등학교 탐방



교장 남화경

백양초등학교의 비전이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당당하고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으로 남화경 교장 선생님은 기초 기본 학력 및 발표력 신장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기르기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작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020.3.~2023.2.까지 3년간 지원을 받아 이웃하고 있는 봉래초등학교와 다양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사를 전개하는 작은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대표적이다.

중심지로부터 멀리 있어 문화적으로 소외되며 소인수학급이라 다양한 활동이 부족하고 원어민 등의 지원이 없는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 비슷한 규모의 두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각 학년별로 연 4회 이상씩 체육, 영어 등의 공동수업을 운영함으로써 다인수학급에서 가능한 스포츠 활동 및 원어민 지원 수업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으로 기획한 운동회, 학년별 체험학습 운영으로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의 혜택 등으로 학교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백양초등학교 브랜드 활동의 전개이다.

백양 해피 3색 마스터 프로젝트!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지수를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케 하며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백양교육을 꿈꿀 수 있게 한다.

3색 중 1색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마스터 프로젝트로 학년별 도전활동이다.

각 학년에서 1년 동안 1종목을 30시간 꾸준히 전개하는데 1학년은 인라인, 2학년은 자전거, 3,4학년은 수영, 5,6학년은 승마 활동으로 자신의 재능과 자신감을 발견하도록 돋는다.

2색은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오카리나 마스터 프로젝트로 이것 역시 전교생이 오카리나 연주를 연 20시간 실시하여 다양한 발표(노인정 봉사활동, 졸업식 등) 기회 제공을 통한 성취의식을 고취한다.

3색은 컴퓨터 활용 능력 마스터 프로젝트로 교과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연 40차시 학년별 단계 형 컴퓨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학기말



수준별 자격 시험(이론 및 실기) 응시 기회 제공 및 자격증 획득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꿈터(마을학교명)와 함께 하는 신나는 마을학교 프로젝트

두번째 브랜드 활동으로 지역 마을학교와 협력 운영하여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활동 속에서 바른 인성 함양과 학생들의 글쓰기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력, 자기 표현능력을 기르며 관계 형성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도모 및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배움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꿈터활동으로 꿈터 예절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난 3월 30일 실시한 기본생활 예절 교육으로 저·고학년 나누어서 다례와 함께 절하기 등의 내용으로 2시간씩 운영하였다. 비슷하게 2021년 1월에는 졸업식과 연계하여 옛날 책거리 형식으로 책례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다른 활동에는 꿈터 절기체험 교육으로 이것 역시 봉래초와 연합하여 우리나라 24절기의 이론적 학습 및 풍속 체험을 1,2학기 1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또, 꿈터 자서전 만들기가 있는데 4~6학년을 대상으로 학기별 10시간씩 20시간을 운영하여 나만의 자서전을 만들어 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 전개된다.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꾸준한 글쓰기를 통한 표현력 향상 및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의 효과도 얻고 있다.



요리와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수학교육

수학은 주변 생활에 가까이 있고 즐길 수 있는 교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리와 놀이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덕분에 전교생이 모두 자율적으로 수학동아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3월 12일, 전교생 참여로 수학과 친해지는 날을 운영할 때는 시간 부족으로 준비한 활동들을 못하고 마치자 언제 또 하냐고 조르기도 하였고 추후 예정된 동아리 회장배 보드게임 대회와 요리 대회는 물론 1,2차 교내수학체험전 등을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사제 동행 책 읽어주기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교학생회 주관 아침 독서 활동으로 책 읽기주기 프로그램도 전개하고 있다. 격주 수요 일마다 아침 시간에 전교생이 도서관에 모여 교사와 언니, 오빠들이 책을 읽어주어서 배려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과는 거리가 먼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나는야 드론 조종사!

또한 다양한 체험과 방과후학교 운영도 자랑할 만하다.

고흥군청 지원의 프로그램인 동요교실과 판소리 교실 외에도 인기 높은 드론교실은 3~6학년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여 우주발사 기지가 있는 지역 인프라를 살려 미래 교육을 지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융합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 주변에 사교육 시설이 없어 오로지 학교 교육에 의지하므로 다양한 부서를 개설하여 모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서로는 바이올린, 컴퓨터, 뉴스포츠, 영어, 미술, 방송댄스 등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여 미래 진로 설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5~6학년을 대상으로 9월에 나로도학생수련관에서는 드론비행, 우주창작물제작, 스페이는 투어 등 특화된 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